

민주 “野,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하자”

이인영 원내대표, 총선 후 처리 목표 ‘여야 회동’ 제안 윤호중 사무총장, 통합당 막말 논란·100조 세출안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승부수를 띄웠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강력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난극복’ 기조를 더욱 뚜렷이 부각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전날 ‘실연 논란’을 빚은 통합당 김대호(관악갑) 후보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

집해 오는 1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대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거는 선거대로 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해 국회 일정을 진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시급한 위기상황”이라며 “당국과 청와대를 설득해 모든 가구에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에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기존 예산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생당에서는 고소득자 지원분을 추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1분기 혹은 이후 (예산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돼, 편성을 바꿔 국제발행을 줄인다는 입장”이라며 “고소득자는 이후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 판세에 대한 관측도 논의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역구 의석 전망은) 13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판단”이라며 “수도권 쪽으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난다”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위원장이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쓰자는 구상은 경제학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판상에 빠진 김 위원장이 허투렐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김대호 후보에 대해서도 “30·40 세대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지지해 하는 상식 이하의 막말 바이러스”라며 “후보 사퇴를 해야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전남 후보자 가족 검찰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15 총선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A후보자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상대측 후보 낙석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책·선전물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형호 기자 khh@



미래한국당 원유철 총괄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 등이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찾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전북서 선거 유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7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을 되새겨 치유와 지역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호남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송고한 희생을 한 영령들을 기리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부상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광주 시민에게 상처를 드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셨다. 달빛동맹의 정신을 발휘해 의료진과 봉사자 등 인적 자원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생필품·음식 등 물적 자원으로 대구 시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서셨다”고 평가했다.

정운천 국민통합단장도 “동서 통합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된다”며 “비례당선권에 5명이 있다. 미래한국당이 힘을

실어줘서 호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회견에는 정 단장을 비롯한 5명의 호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이종성, 조수진, 전주해, 이웅)와 대구·경북 비례대표 후보(한무경, 조명희)가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원 대표는 지역 대학생과 만나 “5·18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참뜻을 기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18 진상조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시세계백화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이어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역 광장에서 거리 유세를 이어갔다.

/오광록 기자 kroh@

총선 예산 4102억원 1표 투표 가치 4660만원

4·15 총선을 치르는데 쓰이는 예산이 4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전체 유권자 수는 4399만4247명이다.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드는 선거비용은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 2632억원 등을 포함해 총 4102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512조3000억원이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다루는 예산이 204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유권자 1명의 투표 가치는 약 4660만원이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전정배·장병완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군 공항 이전”

서구를·동남갑 후보

호남을 위한 ‘중진 역할론’을 내걸고 마지막 총선 출마를 공동 선언한 민생당 전정배(광주 서구을)·장병완(동남갑) 후보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찬반이 명확히 추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지역 사업을 다선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이들은 “호남의 정치 경쟁을 발전시키고 호남의 정치력을 강화해 광주 발전과 호남 집권의 보루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호남의 정치력이 높아질 때 호남과 광주에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



전정배 장병완

다”며 “호남 대선 주자를 함께 만들어 호남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한전공대 정상 개교, 에너지 밸리 성공, 남도 신항류 복합문화 벨트 조성, 고령친화복지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또 “힘 있는 중진 의원들이 뒷받침할 때 광주와 호남의 투자 제안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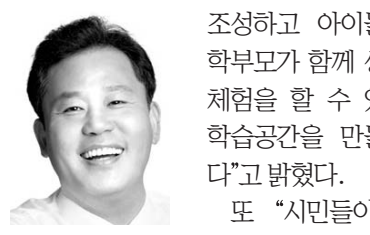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 “친환경 광주천 조성해 삶의 질 높일 것”

서구갑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친환경 광주천을 조성해 서구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해 8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주의 대표하천 광주천을 시민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시민 모두가 생활공간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서구 구간인 상무대교와 치평낙차공 사이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하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개선 및 보행교 시설을 추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잔디광장도 양동시장 고수부지 등 지역 곳곳에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국농민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안주용 지지 선언

나주·화순 후보

민중당 안주용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 측은 7일 “전국농민총연맹(전농) 광주전남 연맹이 안주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안 후보 측은 전농 광주전남 연맹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안 후보와 전농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양 측은 “농업이 무시되고 농촌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농민 헌법 개정을 통한 식량 주권의 기본권 신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명문화 ▲농민수당법 제정 ▲



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통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확대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전농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의처: 266-4150, 573-4150, 528-4150, 513-4150, 572-4150, 576-4150